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학생 운동
대학생 다함께 stu.alltogether.or.kr | atgstudent@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건강보험 민영화, 대운하 강행, 물 · 전기 · 가스 민영화, 물가인상

이명박은 물러나라

시민은 거리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이메가 용량의 고장난 불도저가 기어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고시로 촛불에 기름을 한 트럭 퍼부어 버렸다. 이명박의 '미안하다 고시한다'에 맞서 5만여 명이 이명박 '탄핵 고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후, 지난 주말에는 서울에서만 15만여 명, 지방 90여 곳에서 4만여 명이 모이는 등 "'반정부 투쟁'의 전국 확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한겨레〉) 귓구멍을 시멘트로 막은 이명박은 한 달 동안 이어진 촛불의 함성을 들은 척도 안했다. 이명박은 "국민에게 항복할 필요 없다" 는 극우익 조갑제의 충고를 그대로 따랐다.

반면 이명박은 "고시 연기는 실망스럽지만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미국 축산협회 회장 앤디 그로세타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2014년까지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2배로 증가"할 거라고 기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 자동차, 휴대폰 더 팔려면 미국 쇠고기를 사 줘야한다"고 했다. 재벌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려면, 국민들은 광우병 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면충돌

지난 주말 거대한 촛불은 '이명박 퇴진', '독재 타도'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거세게 돌진했다. 청와대 턱밑까지 이른 반란의 불길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독재 정권의 후예답게 물대포와 테러진압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평화적인 시위대에 야만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주말과 휴일 양일동안 282명의 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했고, 고막이 파열되거나 실명 위기에 처한 부상자도 발생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은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까지 투쟁을 벌이며 엄청난 투지와 자신감을 보여줬다. 경찰의 야만적 폭력은 성난 촛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장관 3명 중 1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강부자 정부,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를 용인했다는 의혹이 있는 정부, 광우병 쇠고기 고시하는 날 물 민영화 방안도 슬쩍 끼워 발표한 정부, YTN 사장에 MB맨을 앉히며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정부가 꼭 남은 임기를 채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는 '6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지금 고장난 이명박 불도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도 진군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에게는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느냐 아니면 정면충돌을 통해 산산이 부서지느냐만 남은 것이다.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촛불대행진
일시 : 6월 3일 화요일, 6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시청광장

6 · 10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
일시 : 6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시청광장

대학생 다함께 발행 | 2008년 6월 2일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 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http://stu.alltogether.or.kr | atgstudent@hanmail.net

동맹휴업을 확대해 전면적 저항을 시작하자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건강보험 민영화, 대운하 강행, 물 · 전기 · 가스 민영화, 물가인상…. 이명박은 압도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증오의 화신이다. 이명박 지지율은 취임 1백일도 안 돼 22퍼센트로 떨어졌고, 20대에게서 가장 형편없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협상 무효, 고시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장관 고시를 강행했다. 그러자 촛불 문화제는 자생적으로 대규모 거리 시위로 발전했고, 분노한 많은 대학생들이 이 운동 한복판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고시를 철회하고 협상을 무효화할 때까지 그리고 이명박이 물러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이제 시민은 거리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더 강력한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반갑게도 서울대 총학생회가 6월 5일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에 돌입했다.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부산지역 4개 대학에서도 이번 주에 동맹휴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또한 한총련은 공식적으로 동맹휴업을 호소한 상태다.

이명박은 지난 주말에도 청와대까지 진격한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군홧발을 동원해서 국민적 저항을 짓밟으려 했다.

그러나 저항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연일 수만 명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다.

동맹휴업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전면적인 저항을 시작할 때다. 지금 여러 대학에서 예정된 동맹휴업이 확산된다면, 대학생들의 저항이 분출하는 데에 초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우들이 저항에 나설 수 있도록 각 대학 총학생회는 자신의 대학 학우들에게 동맹휴업을 호소하자.

수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는 촛불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핵심 구실을 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는 6월 3일, 5일, 7일, 10일 집중 촛불 대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집중 촛불 대행진에 더 많은 선후배 동료대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자.

동맹휴업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가를 더 확대한다면, 제2의 '6월 항쟁'을 건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대규모 투쟁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의 참가와 투쟁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내각총사퇴와 국민투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 자유선진당과 공동으로 '내각총사퇴' 요구를 내걸고 있다. 물론 이명박의 수족인 내각의 수장들은 물러나야 마땅하지만, 핵심으로 책임을 묻고 물러나야할 장본인은 모든 수장들을 실제 지휘하는 이명박이다. 그러므로 '내각총사퇴' 요구는 초점에서 비껴나간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앞집 '강부자' 장관들이 물러나도 분명 옆집 '강부자' 장관들이 다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은 장관 · 수석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이 국민 80퍼센트의 반대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투표는 효과적 전술이 아니다. 만약 이명박에게 국민투표 수용을 강제할 만큼 운동이 거대해진다면 그냥 고시 철회를 받아내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이 궁지에 몰린다면 국민투표를 수용해 시간을 벌어 온갖 술수를 부리며 운동을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러한 술수가 먹혀들어 운동이 약화되고 국민투표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2007년 초에 FTA를 반대하는 거리 반란에 밀려 국민투표를 수용했던 코스타리카 정부가 위기를 타개했던 방법이 바로 이런 식이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이명박의 고시 강행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운동은 통합민주당마저 장외투쟁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물론 민주당이 촛불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6월 1일 시청광장 집회에서 한 시민이 날카롭게 꼬집었듯이, 그 동안 민주당이 이명박에 맞서 "제대로" 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촛불을 들어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또한 손학규가 고시 바로 전에 "FTA를 비준 못한 것에 우리 자신의 책임은 없는가 …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전신인 열우당 정권은 한나라당과 곧잘 공식적 · 비공식적 '대연정'을 통해 개혁 대중의 염원을 배신해 왔던 자들이다.

자유선진당 또한 고시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들의 본질이 차떼기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행보를 절대 신뢰할 수 없다.

'다함께'는 …

미친 소 수입 등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명박의 시장 만능주의와 미국 부시 정부의 침략 전쟁에 반대합니다. 성, 성 지향, 인종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함께'는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 사회 문제와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열린 광장 '대학 맑스주의 포럼', '지역사회포럼'을 개최합니다.
- 세계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진보적 시각으로 다루는 주간 신문 〈맞불〉을 발행합니다.
- 한미FTA반대, 파병반대, 비정규직 차별반대 등 정부와 기업들이 세계를 망치는 일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가합니다.

함께합시다!
(www.alltogether.or.kr)

대학생 다함께를 알아보시려면…
http://stu.alltogether.or.kr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3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